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금융



목 차

1. 산업동향 • 1

1.1 산업 동향 • 2

1.2 산업 전망 • 9

2. 외국인투자 동향 • 12

3. 정부정책 및 관련 법규 • 14

4. 관련파트너 • 17

4.1 주요 PEF와 벤처캐피탈 • 17

4.2 관련 협회 • 18

* 동 보고서 상 수치는 원화(KRW))에서 달러화(USD))로 연도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변환되었음. 단, 연평균 성장률을 설명하는 경우, 성장률 왜곡 방지를 위해 최근년도 평균환율로 환산됨.

* 환산한 금액은 반올림하여 표시하였으나, 합계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올림이나 버림을 적용



1 산업동향

산업 정의 및 분류

【사모펀드】

- (정의) 사모투자(Private Equity)는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사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의 집합체인 펀드가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
 - 공모(public offering)가 아닌 소수(49인 이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모(private placement)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면제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적으로 사모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의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의미
- (분류)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그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2개로 구분하여 규율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및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가치 제고를 통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다시 일반 PEF, 기업재무안정 PEF¹⁾, 창업·벤처전문 PEF²⁾로 구분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다양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공격적 주식 및 채권투자, 차익거래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시장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
- (국내 산업) 우리나라에서 PEF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의미하며³⁾, 상법 상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으로 구성
 - 업무집행사원은 PEF의 운용회사로서 투자자금의 조달과 투자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며, 채권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
 -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금을 위탁한 투자자로 자신의 투자금액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고액 개인투자자 및 연기금, 금융기관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

【벤처캐피탈】

- (정의)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이하 VC)은 '기술력을 갖춰 장래성은 있지만 아직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대해 주식취득 등의 형식으로 투자하는 자본 혹은 기업'을 지칭
 - 대개는 투자대상 기업이 성장한 후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공개하여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

1)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운용하는 PEF

2)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PEF

3) 따라서 본 보고서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를 중심으로 서술하며 감독당국의 공식통계도 PEF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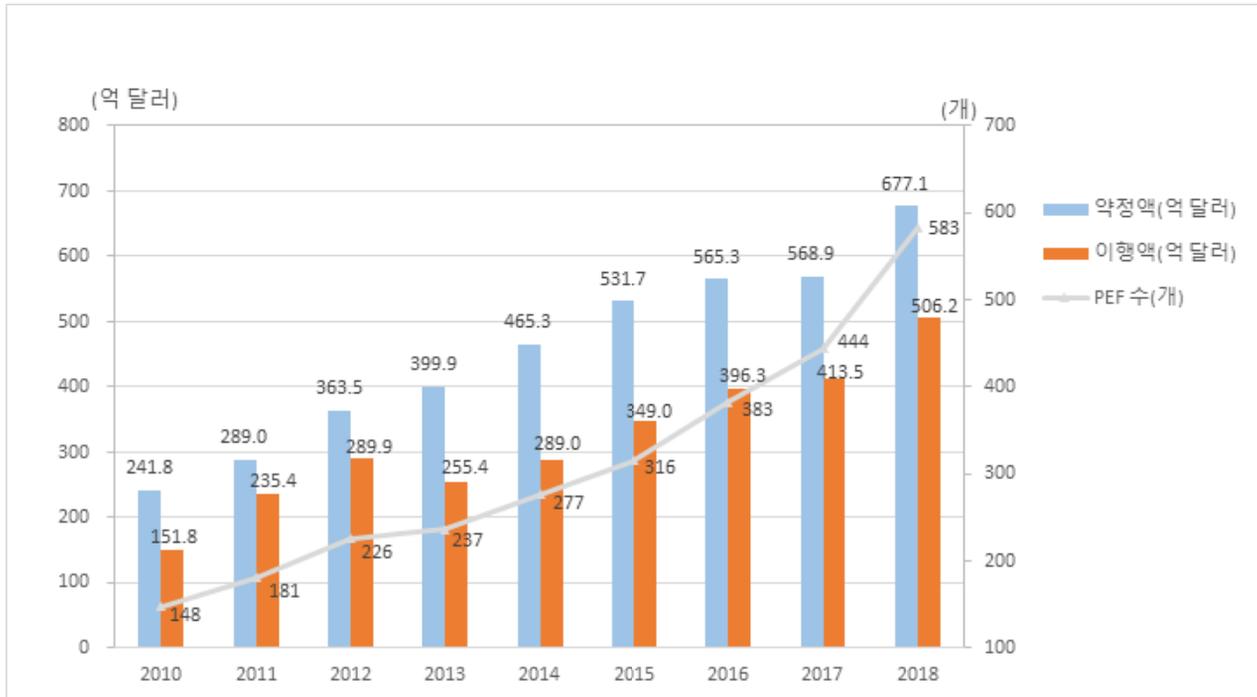
- (국내 산업)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제공 주체는 투자조합과 투자회사로 분류 가능
 - 자금조달의 vehicle 성격의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규정을 준용하고 사모 방식의 투자자간 계약 형식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투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상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조합)
 - 투자회사, 즉 벤처캐피탈사*는 고유 계정을 통한 직접투자 방식과 투자조합을 통해 자금을 모집·운용하는 GP 역할 수행
 - * 창업지원법 상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벤처특별법 상 유한회사, 여전법상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

1.1 산업 동향

▶ PEF(Private Equity Fund)의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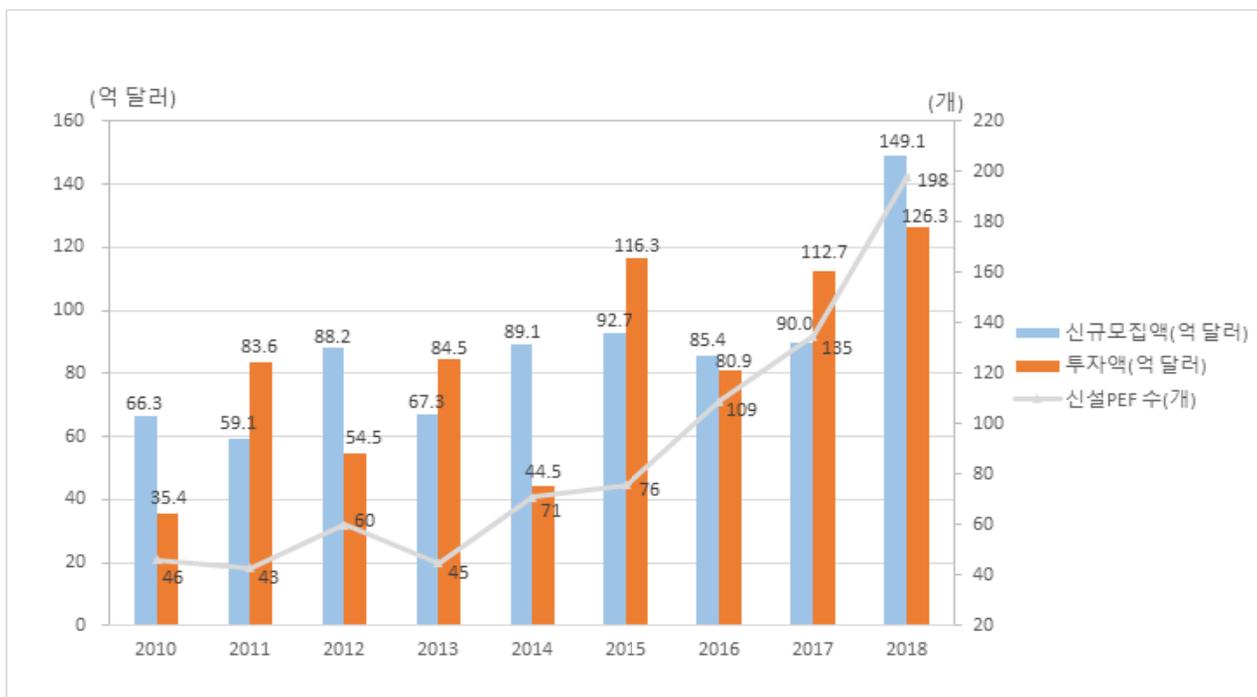
- 2018년 말 기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총 583개로 전년 대비 31.3% 증가해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대비 5.3배 증가
 - * PEF 수 증가율: 2016년 21.2% → 2017년 15.9% → 2018년 31.3%
 - * PEF 수: 2009년 110개 → 2018년 583개
- 2018년 말 기준 PEF의 약정액 677억 달러, 이행액 506억 달러이며 전년 대비 각각 19.0%, 22.4% 증가하여 최근 6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 시현
 - 2018년 PEF 약정액은 2017년 말 569억 달러 대비 108억 달러 증가했으며, PEF 이행액은 2017년 말 413억 달러 대비 93억 달러 증가
- 2018년 중 PEF 신규 자금모집 규모는 149억 달러로 전년(89억 달러) 대비 65.7% 증가하였으며 신설 PEF 수는 198개로 전년(135개) 대비 46.7% 증가
 - 신설 PEF 중 프로젝트 PEF 비중은 147개로 74.2% 차지, 블라인드 PEF는 51개로 25.8% 차지
 - * 프로젝트 PEF는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고 설립하는 PEF이며 그 반대인 투자대상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설립하는 PEF를 블라인드 PEF라 함
- PEF 투자 집행금액은 2018년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2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년(112억 달러) 대비 12.1% 증가
 - 2018년 중 다수의 대형거래가 성사되면서 사상 최대의 투자액 기록
 - SK해운(한앤컴퍼니 등 13억 달러), ADT캡스(맥쿼리코리아 등 5억 달러) 등
- 한편 2018년 중 PEF의 투자회수액은 81억 달러로 전년(67억 달러) 대비 21.6% 증가하였고 해산 PEF 수는 55개로 전년 64개에 비해 축소
 - 2018년 중 몇몇 대형 회수 건으로 인해 사상 최대치의 투자회수액을 기록
 - * 2018년 주요 회수 건: 오렌지라이프(MBK파트너스 11.8억 달러), 두산공작기계(MBK파트너스 10.9억 달러) 등

PEF 약정액, 이행액, PEF 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PEF 연도별 신규자금, 투자액, 신설 PEF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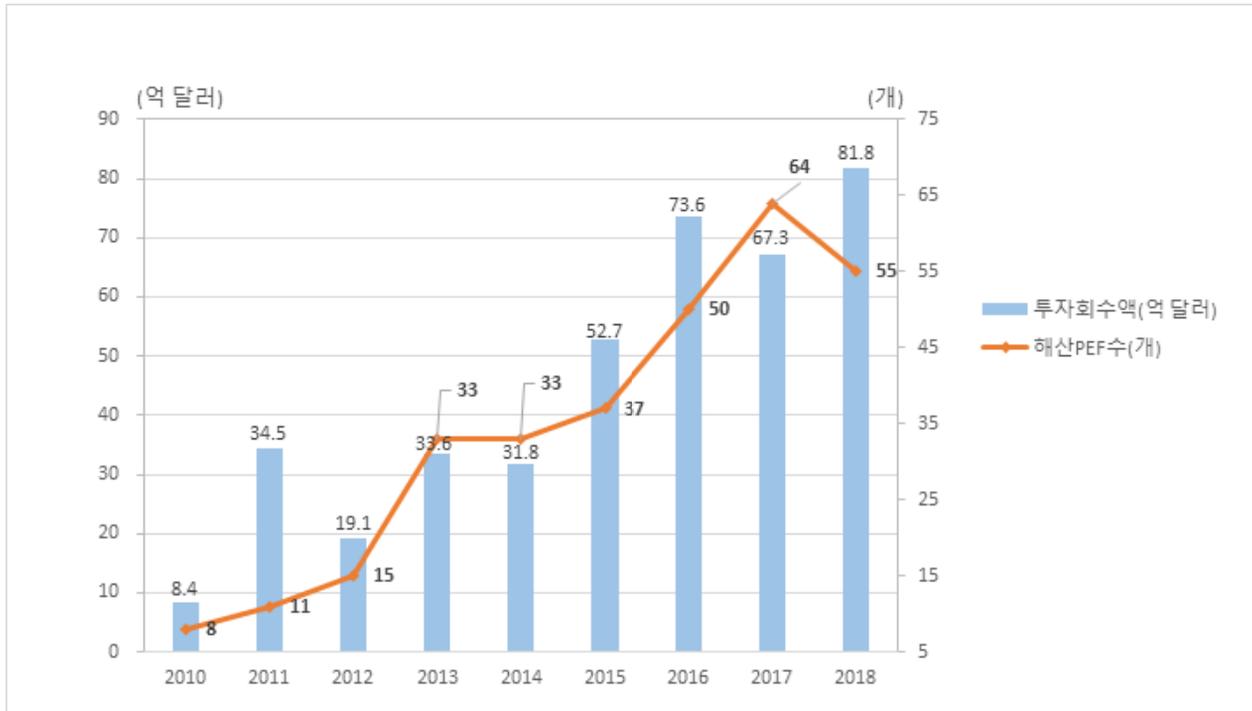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 현재 존속기간 만료를 앞둔 PEF도 다수 있어 향후 투자회수 및 해산 PEF는 더욱 증가할 전망

* 단, PEF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만기 연장 가능 조항이 대부분 있어 존속기간이 연장(통상 2년 내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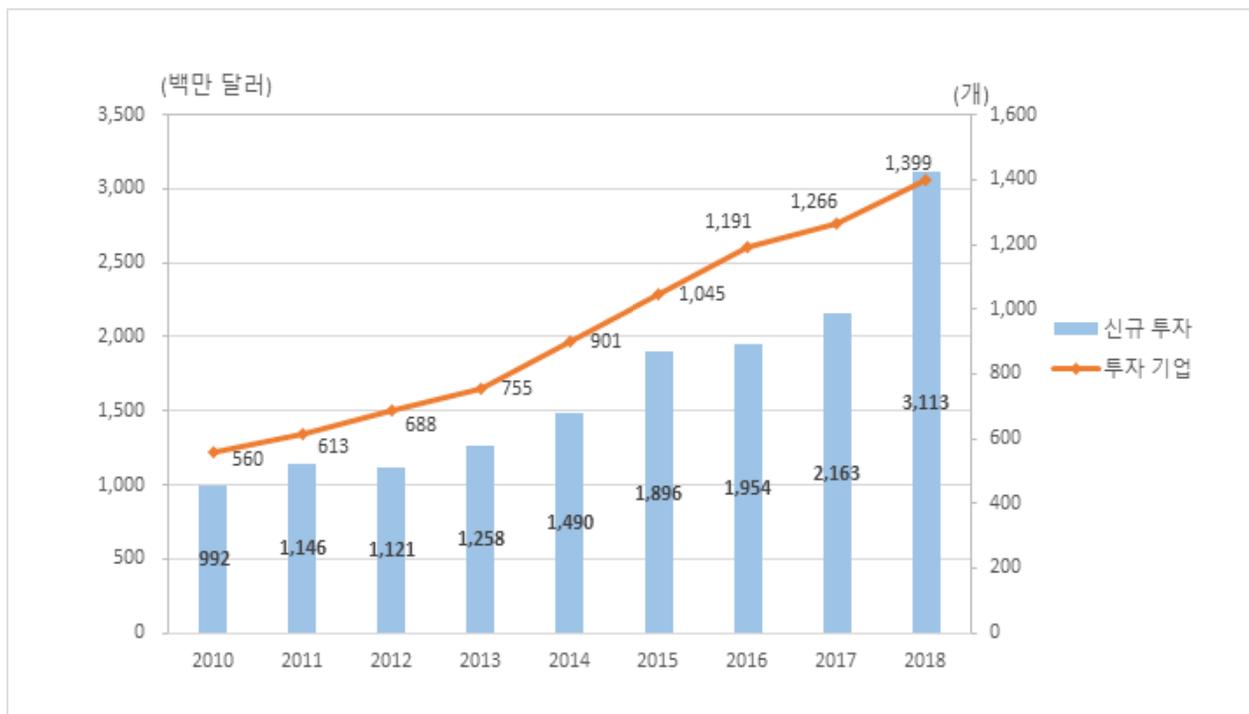
PEF 연도별 투자회수액과 해산 PEF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VC(Venture Capital)의 최근 동향

연도별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부

- 2018년 VC 신규투자는 전년보다 9.5억 달러 증가한 31.1억 달러로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투자기업은 1,399개 사에 달함
 - 2018년 신규 벤처투자 증가율은 43.9%, 투자기업 증가율은 10.5%를 기록하였으며, 기업 당 평균 투자금액도 전년 171만 달러에서 223만 달러로 확대
- 2018년 신규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의료가 764 백만 달러(24.6%)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 ICT서비스 678백만 달러(21.8%), 유통·서비스 520백만 달러(16.7%) 순
 - 2017년 1~3위와 비교해보면 2017년 3위였던 바이오·의료부분이 2018년에는 전년 1위였던 ICT서비스를 제치고 1위로 부상
 - 증가율로 보면 바이오·의료가 전년 대비 122% 증가, ICT서비스는 44.8% 증가하였으며 유일하게 ICT제조는 감소(-4.9%)
- 기업단계에 따른 투자를 보면 2018년도 신규투자는 초기 718백만 달러(36.8%), 중기 559백만 달러(28.6%), 후기 676백만 달러(34.6%)을 기록
 - 2009년부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후기의 비중이 8년 만에 4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초기 투자비중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
 - 2015년과 비교해보면 초기, 중기단계 투자가 각각 5.8%p, 0.7%p 증가한 반면, 후기단계 투자는 6.4%p 감소

업종별 신규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ICT 제조	177 (11.9)	133 (7.0)	87 (4.5)	142 (6.6)	135 (4.3)
ICT 서비스	174 (11.7)	365 (19.3)	369 (18.9)	469 (21.6)	679 (21.8)
전기·기계·장비	142 (9.5)	147 (7.8)	193 (9.9)	219 (10.2)	272 (8.7)
화학·소재	75 (5.0)	135 (7.1)	136 (7.0)	115 (5.3)	123 (3.9)
바이오·의료	266 (17.9)	288 (15.2)	426 (21.8)	344 (16.0)	765 (24.6)
미디어·공연·음악	254 (17.0)	246 (13.0)	243 (12.5)	261 (12.0)	302 (9.7)
게임	160 (10.7)	153 (8.1)	130 (6.6)	115 (5.4)	128 (4.1)
유통·서비스	186 (12.5)	276 (14.6)	227 (11.6)	381 (17.6)	520 (16.7)
기타	56 (3.8)	152 (8.0)	143 (7.3)	117 (5.3)	188 (6.1)
합 계	1,490 (100)	1,895 (100)	1,954 (100)	2,163 (100)	3,112 (10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주: 괄호 안은 비중

기업 단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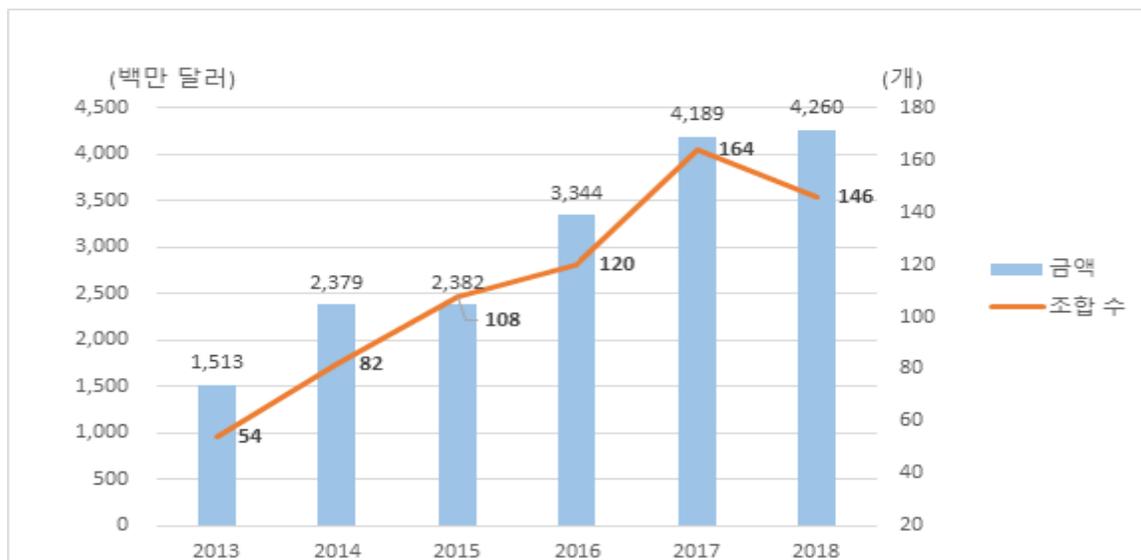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초기 (3년 이하)	290 (29.3)	338 (29.5)	336 (30.3)	336 (26.7)	459 (30.8)	588 (31.0)	719 (36.8)	708 (32.7)	892 (28.6)
확장기 (3~7년)	264 (26.6)	330 (26.1)	285 (25.4)	296 (23.5)	370 (24.8)	530 (27.9)	559 (28.6)	604 (28.0)	1,085 (34.8)
후기 (7년 이상)	438 (44.1)	508 (44.3)	500 (44.6)	626 (49.7)	661 (44.4)	778 (41.0)	676 (34.6)	851 (39.3)	1,136 (36.5)
Total	992 (100)	1,146 (100)	1,121 (100)	1,258 (100)	1,490 (100)	1,896 (100)	1,954 (100)	2,163 (100)	3,113 (100)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주: 괄호 안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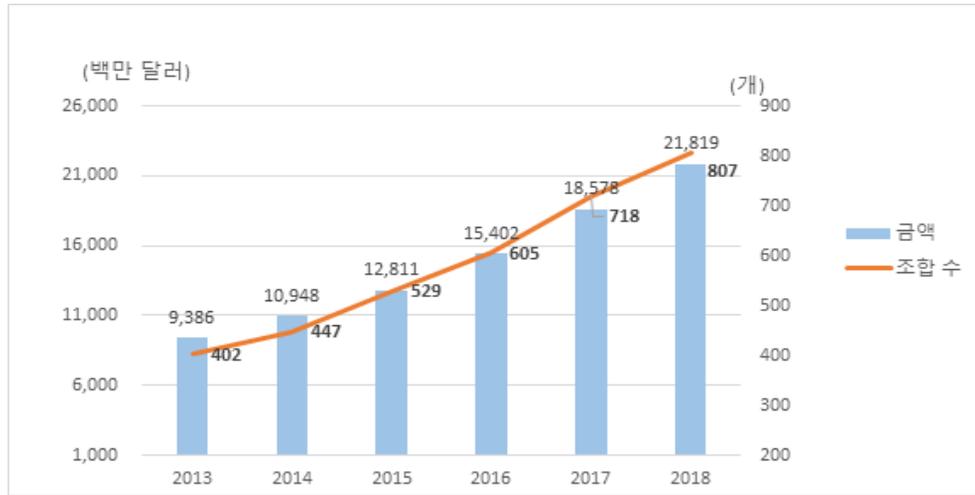
- 재원조성 측면에 있어서도 2018년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가 146개, 42.6억 달러가 결성되면서 전년 41.8억 달러에 비해 소폭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
 - 신규조합 수는 줄어들면서 조합 당 결성액은 29.1백만 달러로 전년 25.5백만 달러보다 3.6백만 달러가 증가했으며, 90.8백만 달러 이상 조합이 최초로 10개 이상 결성되면서 펀드 대형화 확대
 - * 90.8백만 달러 이상 대형펀드: 2017년 4개 → 2018년 12개
- 2018년 기준 운영 중인 조합의 수는 807개이며 운용 금액은 218억 달러이며 조합 당 평균 운용액은 약 27백만 달러
 - 전년 대비 조합 수는 89개, 금액은 18조 30.7백만 달러 증가하였고 조합 당 평균 운용액은 약 1.1백만 달러 증가

연도별 신규 조합결성 금액과 수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운영 중 조합 금액과 수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부

- 2018년 투자회수액은 총 1,328개사로부터 2,433백만 달러를 회수하여 역대 최고치 기록 - 2017년 1,199개사, 1,632백만 달러 대비 기업수로 10.8%, 회수총액으로 49.1% 증가

* 회수총액: 투자원금 + 수익(청산 및 중간회수 포함)

벤처투자 투자원금 대비 회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배)

구분	회수총액 (A=B+C)	회수원금(B)	회수수익(C)	수익배수 (multiple, A/B)
2017년	1,632	983	649	1.66 (66%)
2018년	2,433	1,160	1,273	2.10 (11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회수총액 및 수익배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 수익성을 계산해보면 2018년 기준 벤처투자 원금 대비 약 2.1배(110%)의 수익배수를 달성했으며, 전년 수익배수 1.66배(66%)에 비해 44%p 증가
 - 회수총액 뿐만 아니라, 수익배수 및 회수기업 수도 함께 증가하였다는 것은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제고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
 - 산업별로는 바이오·의료, ICT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회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바이오·의료의 회수실적은 전년에 비해 2.7배 가까이 증가
 - 반면 화학·소재 및 전자·기계 등 전통적인 투자처에서 바이오 및 ICT 등 신산업 분야로 회수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는 경향
- * 전통산업 회수비중: 전기/기계('17, 15.9% → '18, 7.5%) 화학/소재('17, 4.3% → '18, 3.5%)

산업별 벤처투자 회수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바이오·의료	전기·기계	ICT 제조·서비스	게임	영상·공연	유통·서비스	화학·소재	기타	합계	
2017	금 액	215	259	377	243	168	209	70	92	1,633
	비 중	13.2	15.9	23.1	14.9	10.3	12.8	4.3	5.6	100
2018	금 액	576	183	546	389	327	177	86	151	2,433
	비 중	23.7	7.5	22.4	16.0	13.4	7.3	3.5	6.2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회수유형별로 보면 장외매각이 5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IPO 32.5%, 프로젝트 8.2% 순이며 전년대비 장외매각과 IPO를 통한 회수가 크게 증가
 - 2018년 장외매각은 전년 대비 61.36%나 증가하였고 IPO는 36.54% 증가
- 2018년 IPO를 통한 회수액은 791백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579백만 달러 대비 36.5% 증가
 - 2018년 IPO를 통한 수익배수는 3.1배를 기록하였으며 업체수로는 144개사로 전년 대비 14개사 증가했으며, 기업 당 평균 회수금액도 5.5백만 달러로 1.04백만 달러 증가
- 2018년 장외매각을 통한 회수액은 1,307백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809백만 달러 대비 61.4% 증가
 - 장외주식의 경우 1,159백만 달러가 회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699백만 달러 대비 65.8% 증가한 수준이며 회수원금은 482백만 달러로 수익배수는 2.4배
 - * 업체 수로는 503개사로 전년 대비 99개사 증가했으며 기업 당 평균 회수금액도 2.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만 달러 증가
 - 장외채권의 경우 147백만 달러가 회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110백만 달러 대비 33.1% 증가한 수준이며 회수원금은 123백만 달러로 수익배수는 1.2배
 - * 업체수로는 255개사로 전년 대비 2개사 감소했으나, 기업 당 평균 회수금액은 58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만 달러 증가
- 프로젝트 투자 회수의 경우 200백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142백만 달러 대비 39.9% 증가
 - 회수원금은 199백만 달러이며 수익배수는 1배를 기록하였고, 특히 영화와 지식재산권이 각각 52백만 달러(전년 대비 54.8% 증가), 5.9백만 달러(전년 대비 433% 증가) 증가

유형별 벤처투자 회수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IPO	M&A	프로젝트	장외매각		기타	합계	
				주식	채권			
2017	금액	580	52	143	699	111	48	1,633
	비중	35.5	3.2	8.8	42.8	6.8	2.9	100
2018	금액	792	61	200	1,159	147	74	2,433
	비중	32.5	2.5	8.2	47.6	6.1	3.1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주: 기타는 조합지분투자, 해외투자 등

1.2. 산업 전망

PEF 전망

- 우리나라 PEF 산업은 2018년 중 자금모집, 투자 및 회수 등 모든 면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세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 대형 바이-아웃 딜(Buy-out deal) 성사 등 M&A 시장에서 PEF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
- PEF 시장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오히려 신설 PEF 중소형펀드의 수와 비중은 증가하는 펀드소형화 추세 지속
 - 이는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업력 높은 GP 공급 부족으로 투자자 모집에 부담이 덜한 소규모 PEF를 주로 운용하는 데 기인
 - * 최근 출자약정액 90.8백만 달러 미만 소형펀드 수와 비중: ('15)46개(60.5%) → ('16)80개(73.4%) → ('17)108개(80.0%) → ('18)152개(76.8%)

신설 PEF 규모별 현황 추이

(단위: 개)

구분	출자약정액	2014	2015	2016	2017	2018
대형	272백만 달러 이상	6 (8.5%)	8 (10.5%)	7 (6.4%)	5 (3.7%)	13 (6.6%)
중형	90.8~272백만 달러	26 (36.6%)	22 (29.0%)	22 (20.2%)	22 (16.3%)	33 (16.7%)
소형	90.8백만 달러 미만	39 (54.9%)	46 (60.5%)	80 (73.4%)	108 (80.0%)	152 (76.8%)
계		71 (100%)	76 (100%)	109 (100%)	135 (100%)	198 (100%)

자료: 금융감독원

- 국내 위주 투자 등 우리나라 PEF 산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기침체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에서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 우량매물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PEF의 투자기회도 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
 - 그동안 축적된 투자역량과 충분한 투자자금 유동성을 활용하여 국내 PEF들이 기업구조조정 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일부 대형 매물의 경우는 해외 PEF의 참여가 확실시되므로 국제적 경쟁도 예상됨

- 특히 PEF 시장 자체의 성장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더해지면서 PEF 시장성장이 가속화될 전망
 -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시장활성화를 위해 480백만 달러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018년 8월에 조성하였으며 향후 2년에 걸쳐 이 자금을 하위펀드에 출자할 예정
- 또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대체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아직도 해외연기금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대체투자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PEF 자금조달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
 -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12%, 한국투자공사(KIC)의 대체투자비중은 16.4%이며 이는 해외 주요국 연기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2014년 기준으로 해외연기금의 대체투자비중은 CPPIB(캐나다)는 36.5%, CalPERS(미국)은 20.9%이며 해외국부펀드의 경우 CIC(중국)의 37.7%
 - 그동안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2023년 대체투자 비중 목표를 15% 내외로 잡고 있음
 - * 국민연금 대체투자 비중 추이: ('10) 5.8% → ('15) 10.7% → ('18) 12% → ('23) 15%(목표)
- 국민연금 및 KIC의 대체자산 수익률이 전통자산의 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고 이미 연기금 등이 PEF 투자(LP)의 50%를 넘어서 대체투자 증가에 따른 연기금의 PEF 투자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부진하였던 2018년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11.80%인 반면 전통자산 수익률은 국내주식 -16.77%, 국내채권 4.85%, 해외주식 -6.19%, 해외채권 4.21% 등을 기록
 - 2016~2018년 3개년 수익률을 보아도 대체투자는 8.75%, 국내주식 3.07%, 국내채권 2.45%, 해외주식 3.79%, 해외채권 2.77% 등을 기록
 - KIC 최초 투자 이후 전환산수익률로 환산하면 2018년 기준 주식은 2.83%, 채권은 3.68%, 대체투자는 7.40%를 기록

▶ 벤처캐피탈 전망

- 벤처캐피탈 신규투자는 근래 수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제2의 벤처호황기라고 불릴 만큼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저금리 장기화와 적절한 투자대상이 부족한 현 시장상황 하에서는 벤처투자가 대안이 되어 당분간 이 같은 상승추세가 이어질 전망
- 신규 벤처펀드 조성이 최근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투자재원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어 양적인 면에서 벤처캐피탈의 성장은 주목할 만하며 향후 성장 전망도 긍정적
 - 또한 벤처펀드의 출자자 구성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민간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벤처 자금시장의 형성
 - * 2018년 기준 벤처펀드 출자자 구성: 정책금융 33.5%, 민간출자 66.5%
 - * 2017년 대비 정책금융 출자액은 210백만 달러 줄고 민간 출자액은 281백만 달러 증가
 - * 5년 전 2013년에 비해 민간출자자 비중은 15.6%p 증가

벤처펀드 출자자별 금액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출자자 구분	2013	2015	2017	2018
정책금융	747 (49.1)	1,110 (45.0)	1,638 (39.1)	1,428 (33.5)
민간출자	774 (50.9)	1,357 (55.0)	2,550 (60.9)	2,813 (66.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신산업들이 부상하면서 기존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는 벤처캐피탈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 기존 산업의 쇠퇴와 융복합을 통한 변화는 많은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벤처캐피탈에게도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전망
- 2018년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벤처자금 유입이 급증하면서 향후 해당 산업의 성장을 촉진 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벤처캐피탈의 수익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
 -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투자금액은 2018년 1,223백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715백만 달러) 대비 71.1% 대폭 증가한 수준
 - 부문별 투자비중으로 보면 스마트헬스케어(389백만 달러, 12.5%), O2O(187백만 달러, 6.0%), 인공지능(124백만 달러, 4.0%) 순
 -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5G 투자가 383%(5 → 23백만 달러)로 증가하여 가장 높았으며, 빅데이터 309.4%(23 → 95백만 달러), 인공지능 235.5%(37 → 124백만 달러) 순으로 높았음
 - 투자 기업 수로 보면 621개사로, 전년 422개사 대비 47.2% 증가했으며, 기업 수 비중은 투자 금액과 동일하게 스마트헬스케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순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4차 산업혁명 분야	2017				2018				증감률(%)	
	기업수	비중	투자액	비중	기업수	비중	투자액	비중	기업수	투자액
1. 드론	6	0.4	5	0.2	4	0.2	6	0.2	-33.3	31.5
2. 자율주행차	9	0.6	19	0.9	19	1.2	43	1.4	111.1	127.9
3. 스마트팜	3	0.2	9	0.4	9	0.5	8	0.3	200.0	-4.2
4. 신재생에너지	17	1.2	31	1.4	20	1.2	38	1.2	17.6	24.7
5. 스마트시티	6	0.4	6	0.3	17	1.0	22	0.7	183.3	235.2
6. 스마트공장	15	1.1	24	1.1	17	1.0	73	2.4	13.3	203.8
7. 인공지능	39	2.8	37	1.7	66	4.0	125	4.0	69.2	235.5
8. 사물인터넷	14	1.0	13	0.6	19	1.2	19	0.6	35.7	38.5
9. 클라우드	9	0.6	42	2.0	11	0.7	10	0.3	22.2	-76.4
10. 빅데이터	19	1.3	23	1.1	45	2.7	95	3.1	136.8	309.4
11. 5G	4	0.3	5	0.2	8	0.5	23	0.7	100.0	383.0
12. 핀테크	37	2.6	72	3.3	40	2.4	74	2.4	8.1	3.3
13. 지능형 로봇	9	0.6	19	0.9	10	0.6	18	0.6	11.1	-8.5
14. 3D프린팅	4	0.3	6	0.3	6	0.4	5	0.2	50.0	-14.8
15. 블록체인	7	0.5	15	0.7	15	0.9	15	0.5	114.3	5.7

4차 산업혁명 분야	2017				2018				증감률(%)	
	기업수	비중	투자액	비중	기업수	비중	투자액	비중	기업수	투자액
16. O2O (공유경제포함)	56	4.0	101	4.7	76	4.6	188	6.0	35.7	85.3
17. 스마트헬스케어	119	8.4	221	10.2	181	11.0	389	12.5	52.1	76.6
18. 지능형 반도체	10	0.7	13	0.6	9	0.5	17	0.5	-10.0	31.5
19. AR/VR	17	1.2	32	1.5	30	1.8	37	1.2	76.5	14.3
20. 신소재	22	1.6	22	1.0	19	1.2	18	0.6	-13.6	-20.4
계	422	29.8	715	33.1	621	37.6	1,223	39.3	47.2	71.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외국인투자 동향

◆ 현재 외국인의 PEF(벤처캐피탈 포함) 투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어 언론 기사를 통해 나타난 케이스 위주로 동 자료 작성

▶ 사모펀드(PEF)

- 지난 십여 년간의 국내 PEF의 성과는 코스피 수익률을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
 - 2018년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2005년 이후 12년 동안 PEF 투자는 연평균 25%가 넘는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코스피 평균 수익률(10%)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PEF에 LP로 참여하는 경우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track record가 쌓인 국내 대형 PEF가 결성하는 펀드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황
 - 2017년 상반기 기준 STIC 인베스트먼트의 PEF 운용자산은 총 25.3억 달러(이 중 벤처캐피탈 형식 1.9억 달러 포함)인데 이 중 해외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은 8.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됨
 - 국내 최대 PEF인 MBK파트너스가 2016년 12월 41억 달러 규모의 제4호 펀드를 조성할 당시 싱가포르투자청(GIC), 캐나다연기금(CPPIB)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LP로 참여
 - * 당초 펀드 조성 목표 금액으로 35억 달러를 설정하였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초과수요로 인해 조성금액이 45억 달러로 확대
 - 2016년 국내 PEF 운용사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11.2억 달러의 제3호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하는데 국내 21곳, 해외 6곳이 LP로 참여하였으며 해외 LP 투자금액은 총 1.7억 달러 기록
- 해외 주요 PEF가 이미 국내 M&A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주요 대형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자로 참여하고 있음
 - 2019년 4월 블랙스톤(Blackstone)은 10억 달러를 들여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 인수
 - 2019년 6월 어피너티(Affinity)는 빌딩관리업 업체 1위 서브원을 5.5억 달러를 들여 인수
 - 그 외 각종 주요 대기업 매각 입찰에 외국계 PEF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M&A 시장의 생태계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 * 외국 PEF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의 수만 2018년 말 기준 약 1,250여 개를 기록

▶ 벤처캐피탈(VC)

- 벤처캐피탈의 경우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벤처캐피탈에 LP로 참여하는 경우가 PEF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는 국내 벤처기업 M&A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해외 LP로서 투자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는 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대신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최근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 급부상한 주요 벤처기업의 성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유니콘 기업에 합류하였거나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성장기업 상당수가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최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우아한 형제들(서비스업: 배달의 민족), 비바리퍼블리카(서비스업: 토스) 등은 골드만삭스,페이팔 등이 주축이 된 벤처캐피탈 컨소시엄의 투자유치를 통해 급성장
- 특히 실리콘밸리의 알토스벤처스(Altos Ventures)의 경우 한국 벤처기업 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활발한 투자활동을 벌임으로서 국내 벤처생태계의 대표적 투자자로 부상
 - 알토스벤처스는 한국 기업 투자 전용펀드를 2013년 58백만 달러, 2015년 106백만 달러 규모로 각각 조성한 후 매년 평균 8~10개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최근 급성장 벤처기업 주요 해외투자자

기업	서비스	주요 해외투자자
우아한 형제들	배달앱 (배달의민족)	골드만삭스(미국) 컨소시엄(3,600만 달러, 2014), 힐하우스캐피탈(중국) 컨소시엄(5,000만 달러, 2016), 싱가포르투자청 컨소시엄(3억 2,000만 달러, 2018.12)
비바리퍼블리카	송금앱 (토스)	페이팔(미국) 컨소시엄(5,000만 달러), 굿워터(미국) 컨소시엄(2,400만 달러), 클라이너 퍼킨스(미국) 컨소시엄(8,000만 달러, 2018.12)
베스핀글로벌	클라우드 운영 소프트웨어	레전드 캐피탈(중국) 컨소시엄(1,500만 달러, 2017.7) 싱가포르STT(2,700만 달러, 2018.2) 싱가포르STT(7,900만 달러, 2018.10)
직방	부동산 중개앱	골드만삭스(미국) 컨소시엄(3,300만 달러) 골드만삭스(미국) 컨소시엄(1억 4,500만 달러, 2019.6)
센드버드	기업용 메신저	샤스타벤처스(미국) 등(1,600만 달러), 아이코닉(5,200만 달러, 2019.2), 타이거글로벌매니지먼트(5,000만 달러, 2019.5)
하이퍼넥트	영상 메신저	소프트뱅크벤처스(일본) 등(1,100만 달러)
(주)컬리	새벽배송 앱 (마켓컬리)	세콰이어캐피탈차이나 등(9,100만 달러, 2019.4) 힐하우스캐피탈(중국) 컨소시엄(3,200만 달러, 2019.5)

자료: 조선비즈(2018.3), IT조선(2019.9) 자료 재가공

- 한편 해외 벤처캐피탈회사의 국내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벤처캐피탈 생태계를 보다 글로벌화하기 위해 2013년 1호 펀드가 조성되었으며, 현재 약 9억 달러 규모의 2호 펀드가 결성될 정도로 성장

- 한국모태펀드가 글로벌 펀드에 출자하고 이 펀드의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해외 VC이 운영하는 펀드
- 2013년 10월 결성된 글로벌 펀드 1호는 7억 83백만 달러 규모(운용기간 10년)이며 2016년 7월 결성된 2호는 8억 60백만 달러 규모(운용기간 19년)

해외진출 글로벌 펀드 개요

	해외진출 글로벌 펀드 1호	해외진출 글로벌 펀드 2호
결성일	2013년 10월 4일	2016년 7월 15일
조합규모	1억 24백만 달러	1억 47백만 달러
출자펀드 수	11개	9개
출자펀드 규모	7억 83백만 달러	8억 60백만 달러
운용기간	10년(2013.10~2023.10)	19년(2016.7~2035.7)
운용기관	한국벤처투자(주)	한국벤처투자(주)

자료: 한국벤처투자(주)
주: 2018년 6월 말 기준

3 정부정책 및 관련 법규

▶ 사모펀드(PEF)

- 현재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율체계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이원화된 규율체계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지분보유 의무가 있어 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가 필수적이며 출자금의 50% 이상을 2년 내 주식투자하여야 함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경우 지분보유 의무는 없지만 투자회사 주식의 10% 초과 주식보유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이는 해외 추세와 사모펀드의 본질적인 내용에 비추어 경직된 규율 체계이므로 정부는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2018년 9월)한 상태
 - 아직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정부의 이 개선방안에 대해 정당 간 이견이 거의 없어 향후 이 안을 기본으로 법 개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사모펀드 규율체계 일원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
 - 현행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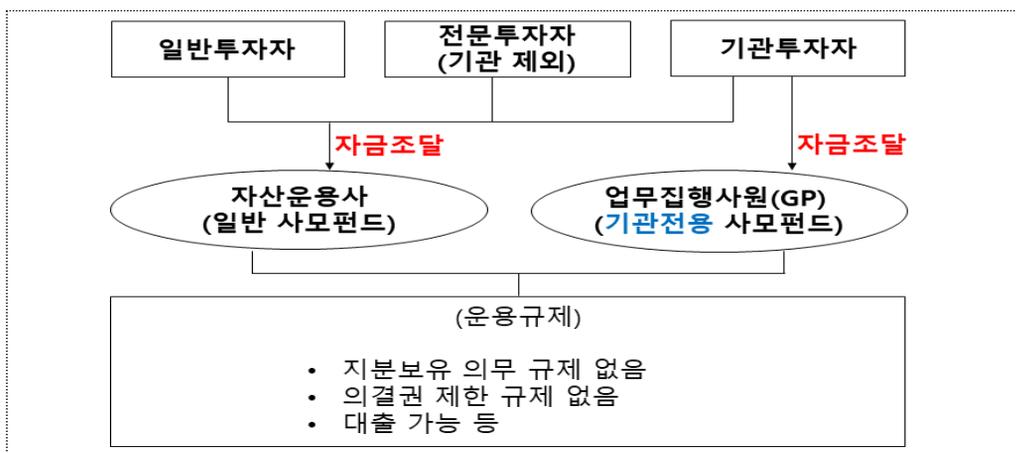
현행/개선 안 PEF 운용규제 비교

구 분	현 행		개선(안)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경영참여형(PEF)	사모펀드 일원화	
운용규제	지분보유 의무	■ 해당 없음	■ 출자금 50% 이상 2년 내 주식 투자 ■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 취득 주식 6개월 이상 보유	■ 규제 폐지
	의결권 제한	■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 해당 없음	■ 규제 폐지
	차입	■ 순 재산 400% 이내	■ PEF 재산 10% 이내 (단, SPC를 활용할 경우 300% 까지)	■ 순 재산 400% 이내
	대출	■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제한)	■ 대출 불가	■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또한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고 감독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안도 제시
 -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영참여형’은 개인이 아닌 연기금,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로 자금을 조달·운용 중
 - 현행 경영참여형은 전문투자형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참여(투자)가 가능하나, 개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흡
 - 따라서 투자자(LP)로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터만 자금을 조달토록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금지

규율체계 개편 후 사모펀드 체계(안)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벤처캐피탈(VC)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벤처기업 투자는 투자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조합의 업무집행사원(GP)를 벤처캐피탈사가 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이 투자체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여성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설립 목적과 소관 법률 등에 따라 조합과 해당 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로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조합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조합은 벤처기업 창업과 벤처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 * 단, 벤처조합이 결성되기 위해서는 모태조합 출자가 필수조건
 - 창투자조합과 벤처조합의 업무집행사원(GP) 중 1인은 창투자, 신기술사, 벤처 전문인력을 갖춘 유한회사(LLC) 중 하나여야만 함
 - *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① 벤처투자전문인력과 ② 조합결성금액의 1% 이상 출자하는 요건을 갖추어 벤처조합 GP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한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되고 신기술금융사가 조합 운영을 담당

벤처·중소기업 투자조합 규제 체계

구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설립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합 설립요건	- 출자금 총액: 3백만 달러 이상 - 업무집행조합원 최소 출자 비율: 출자금 총액의 1% 이상 - 존속기간: 5년 이상	- 모태조합 출자 (필수조건) - 출자금 총액: 3백만 달러 이상 - 업무집행조합원 최소 출자 비율: 출자금 총액의 1%이상 - 존속기간: 5년 이상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
GP	- 창투자	- 창투자, 신기술사, LLC 등	- 신기술사
투자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중소기업 투자기구 운용사(벤처캐피탈사) 요건

구분	창업투자회사	LLC(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설립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록 설립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 자본금: 5백만 달러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 및 물적 요건 - 사회적 신용 요건	- 상법상 유한회사 - 자본금 요건 없음 (조합 지분 1%이상 보유)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 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 자본금: 18백만 달러 - 사회적 신용 요건
운용가능 기구	- 창업투자조합 - 벤처조합	- 벤처조합	- 벤처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캐피탈의 육성, 더 나아가 벤처생태계의 활성화는 항상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였으며 현 정부도 '혁신성장'을 주요 국정 아젠다로 내세우면서 이 같은 정책기조 더욱 강조
- 지난 2019년 3월 정부는 세계적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이라는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면서 다음의 정책목표를 설정
 - 신규 벤처투자 연 45억 달러 달성
 - * 신규 벤처투자: ('18년) 30억 달러 → ('22년) 45억 달러
 -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19년 1월 기준 한국 6개)
 - M&A가 활성화된 역동적인 회수시장 조성
 - * M&A 회수비중: ('18년) 2.5% → ('22년) 10.0%
-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의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과제 추진
 - (전략1)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① 신산업 창업 ② 기술인재의 기술창업
 - (전략2) 벤처투자 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① 혁신 벤처투자 제도 도입·개선 ② 엔젤·초기 단계 등 벤처투자 확충
 - (전략3)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①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② 혁신벤처의 글로벌화 지원
 - (전략4)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① 투자자·기업 등의 회수시장 참여 확대 ② 엔젤·초기 투자의 회수 촉진
 - (전략5)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① 유연한 규제 재설계 ② 핵심인재 유입확대 ③ 혁신 창업거점 활성화

4 관련 파트너

4.1 주요 PEF와 벤처캐피탈

PEF 상위 10개사 (2018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펀드 명	설립년월	GP	약정액
1	케이디비밸류제육호	2009. 7	한국산업은행	2,499
2	엠비케이파트너스삼호	2013. 2	엠비케이파트너스	2,309
3	한앤컴퍼니제3의1호	2018.10	한앤컴퍼니	1,546
4	엠비케이파트너스이호	2008.11	엠비케이파트너스	1,363
5	엠비케이파트너스사호	2017. 1	엠비케이파트너스	1,363
6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차기업재무안정	2011. 6	연합자산관리	1,272
7	한앤컴퍼니제2의1호	2014.12	한앤컴퍼니	1,253
8	케이디비칸서스밸류	2010. 2	한국산업은행	1,136
9	엠비케이파트너스2015의4호	2015.10	엠비케이파트너스	1,129
10	아이엠엠로즈골드3	2015. 3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951

자료: 금융감독원

2018년 벤처캐피탈별 투자실적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달러, 개사)

순위	벤처캐피탈명	투자금액	투자업체 수
1	한국투자파트너스(주)	193	99
2	(주)소프트뱅크벤처스	149	32
3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주)	131	38
4	(주)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127	30
5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주)	103	51
6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99	71
7	인터베스트(주)	85	32
8	케이티비네트웍(주)	79	41
9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주)	71	39
10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69	27
소 계		1,106	38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벤처캐피탈별 펀드결성실적 상위 10개사

(단위: 백만 달러, 개사)

순위	벤처캐피탈명	펀드 수	결성금액
1	한국투자파트너스(주)	3	464
2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3	205
3	케이비인베스트먼트(주)	4	169
4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2	163
5	케이티비네트웍(주)	3	155
6	인터베스트(주)	1	136
7	엘비인베스트먼트(주)	1	132
8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주)	3	128
9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주)	2	113
10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2	108
소 계		24	1,77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2 관련 협회

- 한국금융투자협회(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http://www.kofia.or.kr>)
- 한국벤처캐피탈협회(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http://www.kvca.or.kr>)
- 한국벤처기업협회(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http://www.venture.or.kr>)



KOTRA 20-117

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금융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작성	KOTRA 투자홍보팀
발행일	2020년 2월			협조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www.keri.org)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문의처	투자홍보팀 김소선 (02-3460-7840)
전화	02-1600-7119 (대표)			ISBN	979-11-6490-269-9 (95320)
홈페이지	www.kotra.or.kr www.investkorea.org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자료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